

‘위드 코로나’ 성큼...전남, 일상 회복 속도 낸다

백신 접종률, 1차 80%·2차 61% 돌파...전국 1위 도, 일상회복위원회 구성 등 대응 계획 수립 주목

전남도가 ‘위드(With) 코로나’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단계적 일상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전남도의 선제 대응인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전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로도가 높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 특

성을 고려한 ‘전남형 위드 코로나’ 시책을 추진키로 해 관심을 모은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체 도민 184만명 중 145만명이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을 맞아 80.3%의 접종률을 기록했다. 2차 접종 완료자는 61.7%다.

전남의 경우 이날 1일 기준 18세 이상 성인 90.4%가 1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전

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11월 방역체계를 ‘위드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우고 국민 70%(18세 이상은 80%) 이상 접종 완료, 고령층 90% 이상 접종 완료를 최소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전남도는 ‘위드 코로나’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접종 추진과 단계적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전남도는 도민 90% 접종을 목표로 4분기 백신 예방 접종에 박차를 가한다.

4분기 접종 대상자는 30만2천925명으로 18세 이상 미접종자 20만97명, 소아·청소년(12-17세) 9만6천281명, 임신부 6천547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되며 소아·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수다.

또한 고령층·고위험군 추가 접종(부스터샷)도 진행한다. 백신 효과를 유지하고 위중증·사망을 예방하는 부스터샷은 기본접종 완료 6개월이 지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와 요양병원·시설 60세 이상 고위험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면역 저하자 등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소상공인협회장, 의료원장 등 민·관·학 협력위원회가 참여하는 ‘전남 일상회복위원회’를 구성, 이달부터 월 2회 회의를 열어 다양한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병상 추가 확보(생활치료센터 추가 지정) 및 재택치료 등 의료 대응 체계도 재정비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10월 가을 행락철과 맞물려 도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전남지역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도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발맞춰 ‘전남형 위드 코로나’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남에서는 12명(여수 5명, 순천 2명, 나주·해남·고흥·신안·광양 각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남과 여수에서 발생한 2명의 확진자는 수도권 확진자의 가족이며, 또다른 여수 확진자 2명은 유증상 검사를 통해 감염이 확인됐다. 나주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전남 기확진자의 직장동료로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에서는 직업 소개소 행정명령 관련 3명, 타지역 건설 현장 관련 1명, 유증상 검사자 4명 등 8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했다. /임후성기자



캐스퍼 인수·시운전하는 文대통령 내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6일 청와대 경내에서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통해 생산된 GGM(광주글로벌모터스)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캐스퍼’를 인수하며 관계자로부터 키를 받고 있다(왼쪽). 오른쪽은문대통령 내외가 청와대 경내에서 시운전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16-17세 첫날 5명 중 1명 예약

90만명 대상, 예약률 20.8%...예약 홈페이지 접속 원활

16-17세(2004-2005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된 첫날, 접종 대상의 20% 이상이 예약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당국이 소아·청소년에게는 자율적으로 접종하도록 권고한 데다 백신 접종 후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사람도 많은 만큼 애초 16-17세의 예약률이 높지 않을 거라는 예측도 있었으나, 첫날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16-17세 예약 대상자 89만8천784명 중 18만6천855명(20.8%)이 예약을 마쳤다.

16-17세 예약은 전날 오후 8시부터 시작됐는데, 4시간만에 접종자 5명 중 1명이 참여한 셈이다.

당국은 16-17세 첫날 예약률 상향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는 내놓지 않았으나 예상보다 높은 수치였음을 시사했다.

16-17세 예약은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4주간 진행된다.

예약을 마친 16-17세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한다. 다만 16-17세의 경우 예약 시기별로 접종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다소 달라진다.

오는 9일까지 예약한 사람은 18일부터 접종할 수 있고 10-14일 예약을 한 사람은 25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또 15-21일 예약한 사람은 내달 1일, 2-29일 예약한 사람은 내달 8일 접종이 시작된다.

16-17세 접종은 내달 13일 한 번에 마무리된다. /연합뉴스

준비 안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현장 혼란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인사권 독립을 불과 석 달 앞둔 가운데 하위 법령이 수립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달 안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연말에 이뤄질 하반기 인사에 난항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6일 시의회·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2022년 1월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난 1월12일 공포된 뒤 1년의 경과 규정을 뒀다. 이 개정안은 시행 시점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처 직원의 임용권을 가지고 의원 정수 2분의1 범위에서 정책 보좌관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행 시점을 불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조직 규모와 임기제 공무

원의 정원 포함 여부다.

행정안전부가 조직 규모를 조기에 확정해야 내부 준비를 거쳐 올 연말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데, 시의회는 현재까지 별다른 안을 내놓지 못한 채 타 시·도의회 의 논치만 살피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의 정원 포함 여부 역시 마찬가지다. 현장에서는 인사 적체와 승진 불균형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회 사무 부서 기피 현상도 발

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또 별도 규정 없이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면 의회 사무 부서 직원들은 의회 소속으로 바뀌게 된다. 일반 행정직이 ‘의회직’으로 변경되는 형태다. 이럴 경우 의회 사무 부서 조직 규모가 집행부에 비해 작고 직급도 한정돼 있다 보니, 기회가 열려 있는 집행부 조직을 마다하고 의회를 택하는 직원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이 지난 8월 말까지 내려오길 바랐는데, 관련 규정 개정이 안돼 다음 달 초쯤 지침이 내려올 것 같다”면서 “다른 시·도의회도 대개 12월이면 2차 정례회 마친 뒤 의원 개인 활동하고 폐회한다. 한 달 여 만에 공역·기초의회에서 인사권 독립에 대한 규정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

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을 공포한 뒤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이다.

/이종행·임후성기자

Today
지방자치이슈&인물-황헌택 시의원 5면
상무지구, 혁신성장 랜드마크로 9면
손흥민 선발 오늘 시리아와 일전 16면

THE 11TH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제11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재난과 인권:
새로운 사회 계약

HUMAN RIGHTS IN TIMES OF CHALLENGE:
A NEW SOCIAL CONTRACT

2021.10.07.(목)-10.10.(일)
대한민국 광주GWANGJU, REPUBLIC OF KOREA

www.whrcf.org

주요 프로그램

10월 6일		
인권도시와 공공외교	13:00-15:00	
세계인권도시포럼 개막공연: 사람X사람	16:00-17:00	
유네스코 시티 아트 랩	16:00-18:00	
도시에서 인권을 위한 지구헌장-의제	16:00-18:00	

10월 7일		
청년토크	14:00-15:30	
개회식 & 라운드테이블	17:30-18:30	
전체회의1	20:00-22:00	
여성포럼	22:00-23:30	

10월 8일		
난민	13:00-15:00	
사회적 경제	13:00-15:00	
평화와인권	16:00-18:00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인권	16:00-18:30	
어린이청소년	16:00-19:00	
전체회의2	16:00-18:00	
유네스코 마스터 클래스 런칭 패널	19:00-20:00	
전체회의3	21:00-22:30	

10월 9일		
식량권	10:00-12:00	
노인	13:00-15:30	
장애	13:00-16:00	
유네스코와 청년들의 대화	16:00-17:30	

10월 10일		
폐회식	16:00-17:00	

CMYK